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12)(1/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4 장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함, 1 절

욥 15:15 -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계 8:10 -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눅 15:16 -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 <제자> 주님, 주께서 벼락을 치시듯이 내게 심판을 보내시면, 나의 모든 뼈는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고, 내 영혼은 너무나 놀라 새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나는 벼락을 맞은 자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주께서 보시기에는 하늘이라도 부정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욥 15:15). 주님 앞에서는 천사들조차도 잘못과 흠이 드러나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욥 4:18), 하물며 주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졌는데(계 8:10), 티끌에 지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칭찬 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고 보여준 사람들이 지극히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고, 천사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감지덕지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시 78:25; 눅 15:16).

**말씀과 해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비천함을 발견할 때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이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 보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삼상 16:7 - ...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알게 한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번영하며,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부귀와 권세를 가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잠 24:1 -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들의 형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며 그것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자리와 부귀 영화와 재물과 힘이 그들의 영적 성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세 왕들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왕들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사울과 아합과 같은 악한 왕들도 있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더 많았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고의 왕이라고 추앙 받는 다윗의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인 밋세바와의 불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왕이며 권력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능력이 많은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였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모습,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깊이 살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기억할 또 한 가지는 나의 내면의 참된 변화는 그 변화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마 7:17-18 -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함께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마 7:21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의 내면이 바뀌게 되고, 내면이 바뀌었다면 그 바뀌어진 내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 7:16)**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의 타락은 어느 순간 믿음과 영성이 변질되고 뒤틀려진 내면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다윗을 이어 신실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솔로몬은 사람들의 칭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노년에 부귀와 영화 속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둘러 싸여 믿음의 중심을 잃고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왕상 11:4 -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그의 변질된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내면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열매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자리, 나의 인간적 성공 등등 수많은 외적인 것들로 인해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을 보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나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받은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만약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나 역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고,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선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며 온전한 변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과 삶을 온전히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 우리가 밭 딛고 사는 미국과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며,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한국의 대선에 간섭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완악한 북한 정권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